

작품 개요

「가려나」는 나운영이 중앙중학교 5학년(17세) 때인 1939년 12월 31일 동아일보 신춘 문예현상모집 작곡부문에 응모하여 당선된 가곡으로 나운영의 처녀작이다. 「가려나」의 작사자는 김안서(岸曙), 김안서는 김억(金億, 1896.11.30 ~ ?)의 예명이다. 김안서가 지은 이 정형시는 사랑하는 이가 말없이 떠남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끝없는 구름길 어디로 향하고/ 그대는 가려나 가려나
가없는 바다의 외로운 배처럼/ 어디로 뜨려나 뜨려나
사랑의 스물은 덧없이 저물고/ 앞길은 멀어라 멀어라
기쁨은 빠르고 설움은 끝없어/ 맘 만이 아파라 아파라

이 시는 원래 4절인데 1,2절은 같은 것을 반복하고, 3절만 다르게 작곡했고, 4절 끝부분인 '맘 만이 아파라, 아파라(5소절)'는 클라이맥스를 살리기 위해 개작을 한 것이다.

이 곡은 1967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세번째 가곡집 『나운영 가곡선』(한국음악문화사)에서 출판되었다.

작품 해설

「가려나」는 작곡자가 17세 되던 해인 1939년 12월 3일 완성된 곡으로 후에 동아일보 주최 신춘현상문에 중 작곡부문에 당선되었다. 가사는 김안서의 시로서 당시 나라를 잃고 염세주의에 빠진 지식인의 고뇌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곡은 그의 나이로 보아서 양음악의 이론과 학문에 심취해 있던 작품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전주와 후주를 합쳐 모두 45마디로 되어 있으며 선율의 처음 부분인 11마디는 반복하도록 되어있다. 그의 모든 장르의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최초의 공식적인 작품이 되는 「가려나」는 단순한 화성과 리듬 그리고 유려한 선율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선율의 흐름과 중요한 곳곳에 쓰인 독특한 화성적 색채로 쉬우면서도 예술적 감각 또한 뛰어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곡은 그의 다수의 가곡 중 가장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가장 자주 연주되는 가곡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선율선의 자유로운 구사이다. 당시 대부분의 가곡작품이 서양 포크송 스타일의 형식적 틀에 박혀 4소절 단위로 종지를 이루고 있으나 이 곡에서 18세의 나운영은 이미 그 틀을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처음의 프레이즈는 11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화성에서 선호하는 5도 종지는 마지막 11마디를 위해 끝까지 유보되고 있다. 그대신 I과 IV 그리고 IV의 부속화음 등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단순로운 가운데 변화성을 잃지 않고 있다.

두번째 큰 프레이즈는 마단조로 전조된 후 약간의 나단조의 프레이즈를 거쳐 18마디에 나타나는 솔(G)음이 첫번째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이 부분의 가사 '멀어라'의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리듬상 처음으로 점4분음표를 사용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마디 22에서 다

시 처음의 선율이 나타나며 조도 원조인 사장조로 환원된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30마디째의 '맘 만이 아파라' 의 마지막 음절에서 사용된 독일6의 중음화음은 앞뒤의 단조로운 화성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여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이후 선율은 천천히 하행순차진행하며 마지막 종결을 이룬다.

- 이충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가 라 나

金岸路 作詞
羅運均 作曲

Andante

(1)